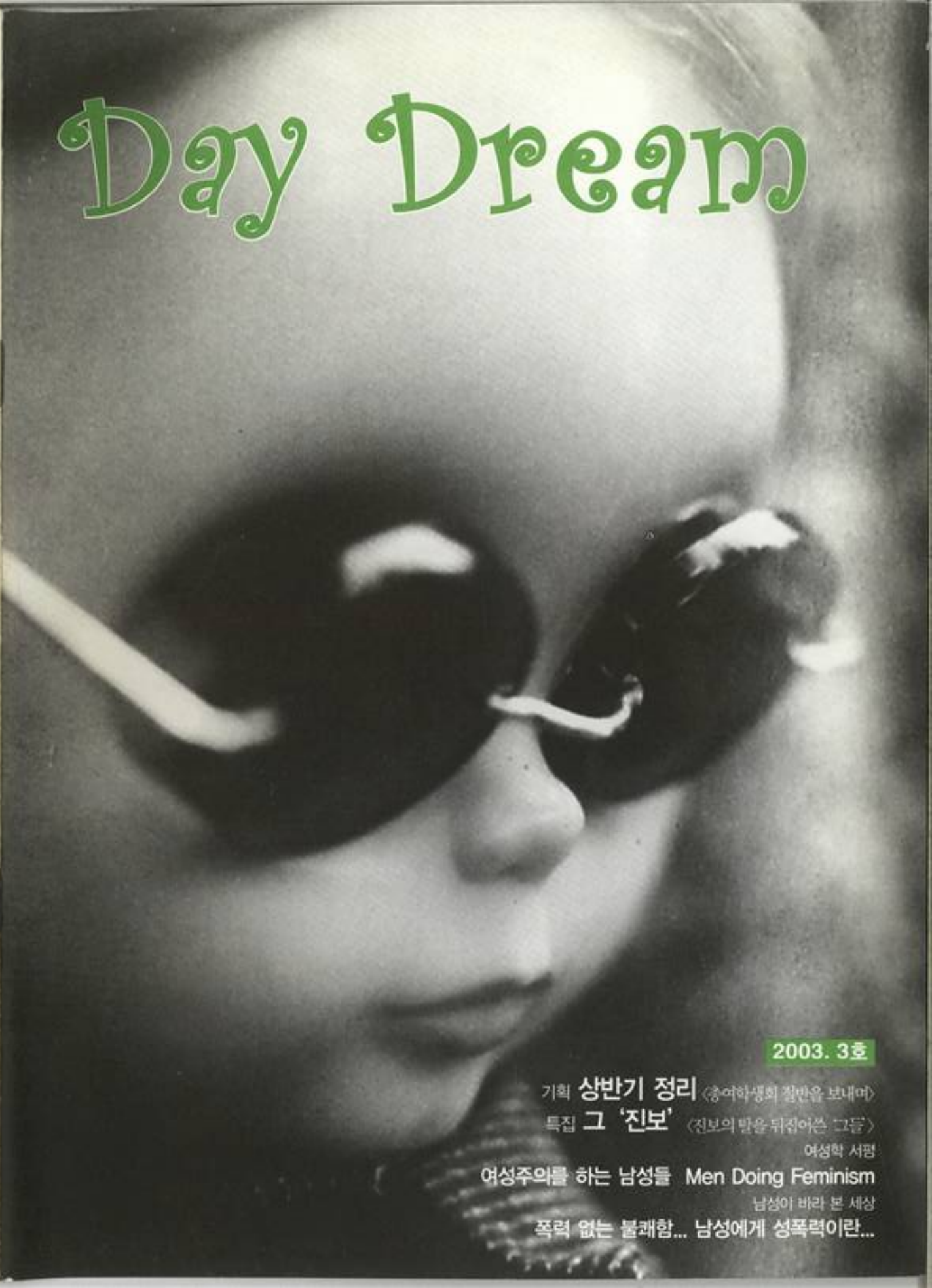


Day Dream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2003. 3호

기획 **상반기 정리** <총여학생회 절반을 보내며>

특집 **그 '진보'** <진보의 말을 뒤집어쓴 그들>

여성학 서평

여성주의를 하는 남성들 Men Doing Feminism

남성이 바라 본 세상

폭력 없는 불쾌함... 남성에게 성폭력이란...

CONTENTS

01 기획 I | 상반기 정리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총여학생회 절반을 보내며 • 2

06 기획 II | 못다한 이야기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 - 기지촌에 남겨진 생애에 여성을 생각하다 • 6

문제의 본질 - 보성초등학교 기지촌 여교사 사건에 대한 단상 • 8

교수 성폭력 토론회, Before & After • 12

15 특집 | 그 '진보'

진보의 말을 뒤집어쓴 '그들' • 16

네티즌의 함(?) • 20

범대위 유감 - 곧 6월 13일이 돌아온다 • 22



24 여성학 서평 | 여성주의를 하는 남성들 Men Doing Feminism

26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 어머니, 당산은 어디에 계십니까

28 여성사 | 뿌리 깊은 '화냥년'의 역사

30 남성이 바라본 세상 | 폭력 없는 불쾌함 남성에게 성폭력이란..

32 이걸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 해마다 여름이면

기획 I | 상반기 정리

기획 II | 못다한 이야기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총여학생회 절반을 보내며



일/破/만/波는 일상의 지루함을 깨고, 여성주의의 흐름을 파뜨린다는 뜻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학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일상을 성찰할 수 있는 자점들을 만들어 내고,
여성주의적인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破/만/波 총여학생회의 2003년 1학기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2003 겨울 기합학교(12/27~1/24)

겨울기합학교에서는 기지촌/외국인 성매매 여성,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성매매금지법, 언론 비평 이상 네 개의 팀으로 나뉘어 주제와 관련해서 팀별 활동을 진행하고, 각 팀 활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성매매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매, 성매매 합법화론, 민족주의와 여성, 군사주의와 여성 등의 주제로 반성매매 세미나를 실시하고 동두천 새문터에서 1주일간 기합을 진행했습니다.

■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 (1/28)

오리엔테이션과 새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내규 제정 이후 발생한 사례들을 추가하고 내규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 여학생 수첩 발행 (2/18)

총여학생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새터를 맞아 여학생 수첩을 발행했습니다. 학생수첩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학생을 위한 수첩을 구성했습니다. 여학생 휴게실, 성폭력, 성지식, 학내 여성관련 단체 및 모임, 가볼만한 카페, 식당, 술집, 영화, 만화, 음악, 여성학 도서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발행된 여학생 수첩이 내년에도 보다 알찬 내용으로 발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한총련의故윤금씨 주검 사진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서 (2/19)

한총련에서 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 기간에 맞춰 발행한 <반대 새내기> 신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군 범죄 중의 하나로 윤금씨 살해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윤금씨가 잔인하게 죽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장면의 처참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다뤘습니다. 이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으로서 윤금씨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지금도 계속되는 기지촌에서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폭력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 미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한국'인 여성을 보여주고 미국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내의 여성운동 단체들과 함께 한총련에 사진사용과 관련해서 문제제기 하고, 신문 발행 책임자인 한총련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데이드림 DayDream 발행 (3월, 5월, 6월)

금세 잊혀지고 마는 한 자락 공상이 아닌,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부딪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길고 치열하게 행복한 '꿈' 이기를 당신과 함께 소망한다는 시작글로 데이드림이 발행되었습니다. 데이드림은 여성주의 시각에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잡지로써 한 학기 세 번 발행합니다. 잡지 형식에 따라 고정 부분으로 여성학 서평,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여성사, 남성이 바라본 세상, 반성폭력 이야기가 들어가고, 매 호마다 시기나 상황에 따라 문제되는 주제들이 기획과 특집으로 다뤄집니다.

- 1호 [기획] Cyberspace is a Battleground! : 오묘조모 사이버 공간 알아보기 / 사이버

성폭력 / 오경끼네스까 in cyberspace /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불쾌함을 감수하라 / 새로운 여성들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공간 [특집] 반 문화 反 문화 : 대학 공동체가 상실한 정체성의 기원 : 반 / 나는 그곳에 있었을까? / KEYWORD로 본 반문화 술자리 그리고 것발

- 2호 [기획] 여성의 노동 : 여성노동 둘러보기 /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당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 작은 밥그릇에 담긴 여성에게 치사한 세상 [특집] 반전과 여성 : 女性?女權! / 평화의 공명을 꿈꾸다 / 잡다한 상상들 / Feminists speak against war! / 전쟁에 대하여 말하기 그리고 행동하기 / 전쟁에 반대하는 여/戰 反戰영화제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혹은 아직도 말할 수 없다

■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 토론회 (3/3)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불안전노동절대연대의(여성노동권팀),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전국학생연대회의와 함께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 전망과 이와 관련한 운동전영의 대응을 평가하고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조발제 : DJ, 노무현,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정책의 함수관계

- 정주연(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송강현주(사회진보연대)

- 토론 : 재생산의 위기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정지현(불안정노동절대연대)

■ 새내기 여성학 학교(3/11~4/1)

새학기를 맞이하여 여성학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즐겁게 여성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위해서 새내기 여성학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 여성은...? 남성은...? 혹시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X : 양성적 어린이의 이야기」

- 여성의 몸과 대상화 :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어떠한지 이야기해봅시다.

「사각적 억압생태와 시선」,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루고, 여성성, 가부장적 권력의 극대화」,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성매매 : 성매매가 필요악이라고요? 성매매는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6장」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 성폭력 : 우리의 일상에서 성폭력을 이야기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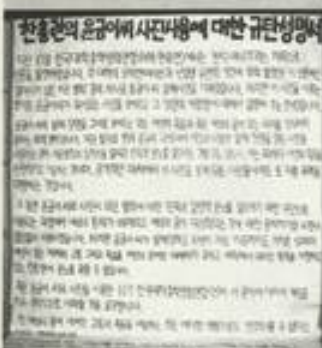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 강의」, 「9장」, 「우아한 폭력과 그 정점은 공모자들 학습되는 무력감, 재생산되는 폭력, 대물림되는 절망」, 「페니스 파시즘」

- 가족, 아내폭력 : 가족이라는 견고한 성(性)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여성, 그리고 폭력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북카페 & feminary 오픈

북카페에서는 200여권의 여성학 단행본과 성폭력, 성매매, 여성 노동 관련 행사 자료집, 여



성주의 매체 등에 대해서 열람과 대어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로 된 자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록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공간의 마초이즘과 여성배제 토론회 (3/27)

사이버 공간이 기존의 권력관계가 무화되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는 환상 혹은 기대와는 다르게, 여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과 여성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발생과 문제점, 대처법 등에 대해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Fminists Speak Against the War 여성주의 反戰 토론회 (4/10)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라크전 지지선언, 한국군 파병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총여는 학내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여/聲'을 구성해서 학내·외에서 반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주의 관점에서 반전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발제1: 반전 담론 안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여성주의자, 반전을 알리기 위하여 (이한지은, 연세대학교 문화학 협동과정)
- 발제2: Whose Reality Counts? (이현옥, University of Sussex Gender and Development 석사)
- 발제3: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타리,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 발제4: '우리를 국민으로 호명하지 말라' - 탈냉전 시대의 '국익' 개념과 반전시민권 (김현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전쟁과 여성' 영화 상영 (4/11)

전쟁에 반대하는 여/聲에서는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50년간의 침묵>과 <이방의 여인들>을 상영하였습니다.

■ 5.3 협약서 중 총여학생회 요구안

- 각 단과대학 별로 여성 교수가 20%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보직 교수 중 여성 교수 비율을 정부시행 수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중앙도서관 6층에 흡연공간을 남·여 별도로 마련하고 환기대책을 마련한다.
- 성폭력 상담실 전임 상담원을 2인 이상으로 확충하며 매학기 채플시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 보행권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대강당 앞 체육 시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공대 옆 운동장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2003년 안에 공대 옆 운동장에 우레탄 공사를 한다.

- 학내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학생참여회에 이를 집행한다. (단대 요구안으로 포함됨)

■ 새오티와 성매매 피해여성 돕기 연대장터 실시(5/15)

대동제를 맞이하여 총여와 학내 여성주의 자치모임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센터인 '새오티'와 함께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연대 장터를 열어서 행사 수익금을 새오티에 지원 하였습니다.

■ 교수 성폭력 토론회 (5/22)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수업 중에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하거나 개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발생하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발언들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무악학사 사생 비율 현실화 요청

현재 학내 여학생 비율에 맞춰 기숙사 사생비율이 현실화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여자 화장실 성폭력 예방 비상벨 설치

공공 화장실에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서 훔쳐보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고립된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대강당 여자 화장실에 성폭력 예방 비상벨이 설치되었습니다. 만일에 발생할지 모를 성폭력 사건에 대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설치된 것입니다. 비상벨 설치가 다른 단대 건물로도 확대되고, 신축 건물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욕망.말하다 (6/3~5)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남성적 시선과 사회적 규정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틀 속에서 여성의 선택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규정성으로부터 다양한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섹슈얼리티 문화제를 기획했습니다.

<분노를 터뜨려라! 트라이브 8밴드에 관한 다큐멘터리>, <에로피프> 상영과 주유신씨 강연, '드래킹 퍼포먼스', 페미먼스의 '여성.욕망.이루다' 공연, 민주광장의 자보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영화 <욕망을 영화화하기> : 여성강독이 말하는 섹슈얼리티를 상영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한글 자막이 없는 테이프가 오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영화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성주의 反戰 토론회]
Feminists speak against the war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수 성폭력 토론회



여성.욕망.말하다
Asian Women's desire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 - 기지촌에 남겨진 성매매 여성을 생각하다



주한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대부분은 미군기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6월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중학생 두 명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기지촌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 동두천이다. 그리고 미군 범죄의 대명사처럼 알려지게 된 윤금씨 살해 사건이 일어난 곳도 동두천 기지촌이다. 물론 이러한 기지촌 이외의 공간에서도 주한 미군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군 주둔의 역사는 6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해방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군 주둔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참전, 그리고 분단 냉전 상황에서 대규모 미군의 주둔이 이루어졌으며, 미군 기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미군은 미군기지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여가 활동은 기지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주말이나 야간 외출 시간에 미군들은 기지 밖으로 나오게 된다. 미군기지 안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여성'만은 없었다. 미군 남성들의 성적 욕구 해결은 미군 당국의 비공식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기지 주변에는 공통적으로 성매매 지역으로서 기지촌이 존재하고 있다.

기지촌은 한국 땅위에 있었지만, 미군의 공간으로 미군기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 - 불법적인 성매매부터 강간,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 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 단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기지촌을 부정했다. 이들에게 그곳은 같은 민족 여성들이 피가 다른 미군들에게 몸을 파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양공주, 양색시 같은 경멸적인 호칭을 붙여서 이들을 배제한 사람들은 미군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었다.

기지촌에서는 많은 미군 범죄들이 발생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미군들과 접촉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항상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민족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수많은 여성



들이 이름도 없이 죽었지만 아무도 이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미군으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여야 여념이 없었던 한국인 포주, 이러한 사건이 기지촌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에 급급했던 한국인 경찰들..

"하찮은 여자 하나 죽은 것 가지고 한미 우호 관계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 / "지금 북한에서 잠수함도 내려오고, 말하자면 준전시 상황인데 미군 범죄 가지고 부대 앞에서 시끄럽게 시위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돼. 우리가 미군을 도와 줘야 한다니까." / "자꾸 뭘 알려 달라는 겁니까? 전화로 말할 수 없어요. 어허 그건 '군사 기밀'이라니까." "민족의 이름으로 순결해진 딸들?" - 주한미군 범죄와 여성, (정유진, 1999)에서 재인용

미군범죄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로 한국인 공무원, 경찰, 형사들이었다. 이들에게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행위와 한국인이 겪은 피해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시각은 미군과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바람이었다.

미군 범죄의 역사는 미군 주둔의 역사와 함께했지만, 정작 남한 사회에서 '미군 범죄' 문제가 드러난 것은 90년대 이후부터이다. 92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한 성매매 여성이 미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항상 은폐되고 잊혀지던 미군 범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군범죄가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불평등한 SOFA 개정부터 미군 공여지 문제, 미군기지 반환 운동, 주한 미군 철수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한미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민족의 적으로서의 미군이 아닌 남한이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한민족=선, 미군=악'의 구도는 한국인이 미군 주둔 과정에 깊게 개입해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든다. 특히 한국 남성에 의한 기지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러한 대립구도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오늘날 기지촌이라는 공간은 다시금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한동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반미 운동의 중심적 공간이었던 기지촌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민족의 순결한 딸'이 미군에 의해서 살육당한 그곳에 피부색만 다른 딸들이 1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이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 러시아·필리핀 이주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지촌으로 들어온 것이 되어버렸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 정도가 되어버렸다.

미군 철수나 SOFA 개정이 미래의 미군범죄를 줄이거나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겠지만, 여기서 지금까지 미군으로부터 받은 피해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피해의 경험은 상처를 치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화되어야 하지,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Day Dream

미군은
이 땅을
떠나려
한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죽었지만 아무도 이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미군으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여야 여념이 없었던 한국인 포주, 이러한 사건이 기지촌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에 급급했던 한국인 경찰들..

문제의 본질

-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사건에 대한 단상



올해 상반기만큼 '전교조'라는 이름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도 없을 것이다. 반미·반전 수레에서 시작해서 어느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 최근까지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NEIS 문제에 이르기까지 올해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전교조'이다. 그 중에서도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킨 일에서 촉발된 보성초등학교 서승묵 교장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전교조는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실에서의 수업을 거부하였고, 그 학교에서 근무하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더이상 교직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 교장의 자살에 대한 동정 여론과 전교조를 향한 비난의 화살 속에서 정작 문제의 본질은 묻히고 말았다. 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던, 사건의 1차 피해자인 기간제 여교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기간제 교사' 이자 '여교사' 이기에 겪어야 했던 많은 부당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1. '여교사',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어느 직장이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 분장을 통해 개인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한다. 회사 또는 학교의 여러 업무중에서 차 접대나 자료 복사와 같은 '사소한' 일은 주로 여직원 또는 여교사가 맡게 된다. 사건이 일어났던 보성초등학교의 업무 분장 상에서 기간제 여교사 J씨도 '차 접대'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건이 가시화된 후 여러 인터넷 게시판은 물론이고 언론에 실린 몇몇 인터뷰 기사에서도 '교장의 차 심부름을 감히 부당하다고 여긴 J교사'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다.



사설 서승묵교장, 전교조에 공격받은 '출격의 예모'

2월 27일 "문는말에 똑바로 답하라"
28일 "교장-교감 사과문 써라"
31일 "책상치며 교감에 대들어"

보성초교 학부모들 "전교조가..."

사설

보성초교 학부모들 "전교조가..."

"그 여자의 태도는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었다. 차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중략) 그러나 차 심부름 정도는 속으로 기분이 나쁘고 아니꼬워도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 한겨레', 「토론평」, 〈교육정책 논란〉, 3340번 글

"교장이 기간제 교사한테 차 심부름시킨 거... 회사로 생각하면 사장이 신입사원한테 차 심부름시킨 거예요. 그리고, 교장이 악의적으로 여성차별적으로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 한겨레', 「토론평」, 〈교육정책 논란〉, 3897번 글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은 아예 사건을 '교장' 본인이 채용한 교사에게 커피 한잔 먹고 죽어간 사건'이라고 정의내렸다. 박 의원은 "나도 학교를 방문할 때 여교사가 커피를 타주면 반갑게 마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커피를) 먹겠냐"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2003년 4월 26일, 「서 교장은 교사 커피 한잔 먹고 죽어갔다' 한나라 의원들, 교육위서 '전교조 청문회?'」중

어른에 대한 예의? 부하 직원이 상사를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어른에 대한, 상사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남직원·남교사에게도 차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 그러한 장면은 쉽게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차 접대'의 업무는 결코 남교사에게 맡겨지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좀더 섬세하다는 이유로, 좀더 살갑다는 이유로 여직원·여교사에게 주로 부과되는 차 심부름, 복사, 청소 및 정리 등의 일은 그 자체로 생산성을 갖기가 힘들다. 다른 일을 위한 보조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 '별 것 아닌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업무는 남성들이 차지하고, 여성들은 남성이 차지하고 남은 잡무들, 특히 남성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한 업무 분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고, 직장에서 여성이 차 심부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사회의 통념에 비추었을 때, 여성은 그런 '사소한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위에서 인용한 의견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윗사람에 대한 예의'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며, 오랜 기간 굳어져온 성차별적 업무 분장이 초래한 비극이다. 그리고 그 비극은 아직도 여러 곳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2. 살얼음 위를 걷는 사람들,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인데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구나? 생각했다. (중략) 내가 정규직이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한겨레', 2003년 4월 10일, 「예산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눈물의 인터뷰'」중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쁨이고 중요한 일인건 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그들은 언제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계속 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교감에게 '잘 보여야' 하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참교육'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있는가.

만약 기간제 여교사가
자살했다면...



자시중 요구에 자살!
성격 문제 있다

여교사 자살품토 만연,
우리 아이 어떻게 학교 보내나

교직 부적응자
조기 대책 세워야

교사가
자살이라니

교사자살, 배후세력 있다

보수언론 논쟁

여성이 남성보다 좀더
섬세하다는 이유로, 좀
더 실감나는 이유로
여직원·여교사에게
주로 부과되는 차 심
부름, 복사, 청소 및
정리 등의 일은 그 자
체로 생산성을 갖기가
힘들다. 다른 일을 위
한 보조 업무에 지나
지 않는다. 그렇기 때
문에 '사소한 일', '별
것 아닌 일'로 여겨지
는 것이다.

J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굴레는 바로 '비정
규직 교사'라는 것이다. '정규직이었으면 이런 일
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J씨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교육 현장에서도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기간
제) 교사는 그 지위 및 대우가 상당히 다르다.

기간제 교사는 2000년 이후 교원 노동관리 유
연화 정책 등과 맞물려 급속도로 늘어 2002년 4월
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중등 교사의 6%가 넘
고, 그 중에서 여성이 70%가 넘는다. 기간제 교사
들은 급여수준이 경력과 상관없이 정규직 교사의
2~4년차 수준인데다, 연·월차 휴가도 없고, 방
학 때는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일
선 학교는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
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게 대부분이다.

또한 임용부터 해고까지 모두 교장 재량에 달린
탓에, 기간제 교사들은 차 심부름 등 수업과 무관
한 요구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정은 이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는 '이 학교 교감이 지난달 7일 J 기간제
여교사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잘 보여야 한다'며 아

침마다 교장의 차 시중을 할 것을 요구해 담임을 맡
은 반 아이들의 아침 활동 지도와 교재 연구를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들어 거절하자 교장이 임용 계
약서를 들어 업무 이행을 못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한겨레, 2003년 4월
1일, '기간제 여 교사에게 차 시중 강요 물의'중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의 임용 및 해고에 관한 모
든 권한을 쥐고 있는 교장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
법은 '차 시중'을 드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
면 '업무 불이행'이 된다. 교장에게는 임용 계약서
가 그저 종이 한 장일지 모르나 기간제 교사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줄인 것이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중요한 일이건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로 그들은 언제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계속 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교감에게
'잘 보여야' 하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참
교육'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있는가.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였던 J씨는 한겨레
와의 인터뷰 중 "전국의 2만여 기간제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나는 문
제에 적극 대응하려다 이렇게까지 됐다. 그래서
'원만하면 그냥 참고 지내라'고 권하고도 싶다."라
고 대답하였다.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는 것
이 아무렇지도 않은 현실, 용기있게 행동한 그녀로
하여금 '그냥 참고 지내라'라는 말까지 하게 만든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덧붙임.

보성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한 익
명의 회원이 보성초등학교에 커피 자판기를 보
내주었다고 한다. 그 마음 씬씀이와 발상은 분명히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자판기에서 커
피를 뽑아 날라야 하는 사람은 과연 또 누가 될 것
인지. **한겨레**

성매매피해여성자립·창업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

언니에게 희망을 CONCERT



- 페미니스트가수 지현
- 티(예정)
- 이상은(예정)
- 안혜경(예정)
- 뮤지컬 배우
김영주, 김선영, 박준면

■ 일 시 : 2003년 7월 19일 늦은 7시

■ 장 소 : 연세대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공연취지 >>>

새움터의 여성센터·동두천 직업재활센터를 부르는 말은, 1998년에 문을 열어 탈성매매한 언니들의 경제적 자립을 준비
하는 곳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6년의 시간 동안 여성센터는, 언니들의 성매매피해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료로서
서로를 보듬어 안는 소중한 열매들을 맺어왔습니다. 또 손수 공예품들을 기획하고, 생산하며, 판매하는 그 전 과정에 주
체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제 언니들은 생존자로서 일구는 희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의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편견의 벽을 깨고,
성매매운동의 주체로서 경제적 자립의 실질적인 도움닫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겪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경제적'인 대안 구축을 통해 해소하고, 탈성매매한 언니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이번 공연은, 단순히 수익사업으로
써가 아니라, 언니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주 최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지현 앤 컴퍼니

주 관 : 언니에게 희망을 콘서트 기획단

새움터, 지현 앤 컴퍼니, 연세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관악여성모임연대

후 원 : **W**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공연티켓
문의처
계좌

학생 15,000원 일반 30,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10%)
031-867-4655 016-9876-4395 swoom@chol.com
농협(예금주:김현선) 193-12-233061(입금 후 연락요망)



교수 성폭력 토론회,

Before&After

왜 교수 성폭력이 문제가 될까요?

'교수 성폭력'이라고 하면 너무 '대단'해 보이나요?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감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한다(1)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희롱'이나 '성차별' 같은 좋은(2) 단어도 있는데 꼭 '과격하게'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유형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으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모두 성폭력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교수의 성폭력은 그것이 공개적인 자리이기에 신체적 접촉보다는 언어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보통 여학생들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그런 발언을 듣고 신나게 웃고 있다가 일쑤지요. 교수님도 남학생들의 그 해맑은(3) 웃음을 보고자 수업 시간마다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보통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시지 않던가요? 이렇게 되면 불편해진 여학생들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나만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 웃어보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하고 말합니다. 왜, 예전부터 무엇이 어떻게 불편하다고 말하면 역시 여자라서 예민하다는 등 하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더 이상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요. 이 정도는 털털하게 웃어넘기는 '개방적인 여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설사 그것이 내가 예민한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말을 한 사람이 교수님이기에



여학생들은 또 다시 같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그 말씀은 이러저러해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 이후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개적인 수업 시간 이다보니 그 발언을 한 이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돌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재 무서운 애야 등-당장 싸-해지는 분위기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야말로 '교수님'이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동기들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당장 학점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학점 걱정도 되고 적어도 한 학기 동안은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수업 시간마다 겪게 될 괴로움을 생각하면 그냥 꿀꺽 참고 넘어가는 게 신상에 좋을 듯도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안 좋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버릇없고 건방진 것으로 몰아가는 상황도 힘이 들겠지만, 교수님은 아무래도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 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시기도 하면 그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상황도 힘이 들긴 마찬가지지요.

듣고 싶은 말은 잘못했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사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인데,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도 듣기 싫어요.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요, 과실치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속으로는 열심히 생각해보지만 입 밖으로는 한 마디도 나오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 수업은 저만치 가버립니다. 말할 타이밍도 놓쳐 버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수업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교수님 얼굴 보기도 싫은걸요.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수업 내용은 별개라는 논리를 펴지만 수업 내용으로 성폭력적인 예가 쓰이는 건 어떻게 하죠? 기계적으로 지식만 전달받고 끝나지 않는 이상 인격과 수업 내용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일로 수업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들어가도 괴로워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고, 부당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비하되고 차별받아서는 안되잖아요. 편안하게 수업을 받는 것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교수 성폭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인 교수 성폭력이 묻혀지고 있다는 데 위기의식을 느낀 총여학생회는 지난 5월 22일에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지요. 수업 시간에 일어난 교수 성폭력 사례들의 정리와 분석, 실제로 사건이 신고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대처 방안을 중심 내용으로 한 발제와 그에 대한 질문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진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그 자체로서 교수 성폭력에 대한 하나의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은폐되어 있는 문제는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토론회 발제에서 제시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하기가 어렵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수업이 끝나고 생각을 조목조목 잘 정리해서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도 듣기 싫어요.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요, 과실치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속으로는 열심히 생각해보지만 입 밖으로는 한 마디도 나오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 수업은 저만치 가버립니다.



버릇없고 건방진 짓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힘이 들겠지만, 교수님은 아무래도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 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시길래도 하면 그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상황도 힘이 들긴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어렵다면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메일을 보냈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라.' 이상의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교수님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사소한 트집 정도로 여기는 동시에 '성폭력'이라는 것에 과민 반응하여 자신은 절대로 성폭력 교수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꾸준히 메일을 보내서 문제 제기 한다면 교수님께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총여학생회에 신고합니다. 총여학생회에서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함께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내 상담실과 연계해서 학칙으로 해결한다든지, 다른 단체와 연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학내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대책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대책 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교수님에게 수업 시간에 있었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공문이 전달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공식적인 처리이니만큼 교수님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반발 또한 크기 때문에, 발언을 녹음하거나 그 이야기를

같이 들은 다른 학생들을 찾아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하고요. 수업 시간에 공개 사과를 원하는지 공개 자보를 붙이고자 하는지, 아니면 더 이상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지 등의 방안 말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신고한다고 그 일이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신고 전에 자신에게 신고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유 토론 시간에 익명으로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방안과 기존의 학칙 개정, -기존 성폭력 관련 학칙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http://www.yonsei.ac.kr/~ysfem>)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화 등의 대처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는 토론회 이후에 토론회를 정리한 자보를 각 단대와 중도, 학관 등 주요 건물에 부착하였고 발간한 자료집을 모든 교수님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초인이 아닙니다

간혹 대처 방안을 이야기하고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듣고, 또 공부한 다른 사람이 왜 그 부당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냐고 피해자를 혼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초인도, 성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를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피해자 또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피해 상황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도 막막하기만 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힘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를 꾸짖으며 성폭력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밀쳐 일어나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닐까요? **Day Dream**

특집 | 그 '진보'

진보...

나이값 진보, 걸을 뉘뉘, 앞으로 나아갈 나아가기 위한 걸음

사람들은 희망합니다. 이 사회가, 나라가, 세상이 진보하기를. 이 때의 진보는 이미 일자리를 선점한 사람이 뒷사람들과의 간격을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들과 앞서있는 사람들의 간격이 좁아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낼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진보의 이름으로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진보주의자, 진보적 인사, 진보적 지식인, 진보적 운동가 등은 다양한 일들로 불리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편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들 반대편에 서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성과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장애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빈곤층, 노동 조합, 외국인 노동자들 등을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이분들께서 왜 하나같이 여성에 관한 문제 앞에선 어떤 위약 혹은 모순을 보여주는 걸까요? 정치 경제 검찰 경찰 국회 외교 문화 방송 교육 언론 심지어 스포츠나 연예에까지 남자를 두 눈을 번뜩이며 입안일침을 날리는 분들이 왜 그러도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이 없으신 걸까요? 그 훌륭한 '진보'들께서 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많은 이들을 황당하게 하셨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인 1위에 뽑혔던 적이 있다는 분과 '유쾌한 정치만민'을 이야기하며 얼마 전 국회에 입성하신 분. 작년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 이후 온갖 시위와 집회의 선봉에 자리잡고 가끔은 폭력적으로 느껴질만큼 치도하게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고 반미 의식을 고취시키려 한다면 뉘 올곧이 써의 주장 사전을 이기지기 싸워야 하는 분들. 컴퓨터로 매개되는 세상에는 자유만 존재할 뿐 억압할 것은 없다는 듯 '행가' 일이 터질때마다 우르르 몰려가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웹사이트를 미비시키며 온갖 계산을 성폭력적인 발언들과 사진들로 채우는 분들.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분들, 과연 진정한 '진보' 일까요?

그 정답은 곧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집 | 그 진보

진보의 탈을 뒤집어쓴 '그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그럼요, 억압받는 남성들, 많죠. 비록 제가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생물학적 성, 단지 그것 하나 때문에 억압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떠나서 말이예요. 남과 여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을 말이예요. 전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노력하는 페미니스트랍니다...아, 그렇지만 중산층 엘리트 남성주의자들의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넓히는 데만 급급해할 뿐, 인간에는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죠. 하층 남성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자신이 중산층으로서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빚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단니까요. 정말...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억겨워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전 남성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일간지나 주간지, 아니면 계간지라도 좋다. 웹진이라도 좋다. 대담이어도 좋고, 인터뷰여도 좋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과학, 연예... 그 어떤 면이라도 좋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태어나서 오늘 이때까지 저런 발언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하하하, 답은 명쾌하다. 당, 연, 히!!! 없을 것이다-없다!! 그 이유? 너무나

간단하다.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 '성'으로 인해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남성'은'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떤 여성도 저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어떤 여성이 저런 말을 했다가는 100%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을 여성으로, 페미니스트를 마초로 바꾸어 보자. 어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걸까? 음...아! 작년 4월말 스스로를 '노력하는 마초'라고 칭하는 B급 좌파가 '저런 비슷한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또...그래, 작년 후반기 '상식적인 좌파'라고 이름난 문화 계열라 한 사람도 '저런 비슷한 말'을 했었지. 아니야, 올해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아! 몇 달 전에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를 '사랑하는 젊은 벗'이라 부르며 '러브레터'를 보내는 한 언론인도 '저런 비슷한 말'을 했었다. 와, 잊을 만 하면 바통터치해서 끊임없이 하는구나. 놀라워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솔직히 말하련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예전에 저 상식적인 좌파와 언론인의 글을 참 좋아하던 독자였다. 고등학생 때부터 저 언론인이 쓴 책과 신문 칼럼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읽었으며 언론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구체화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했었다. 상식적인 좌파의 글을 여러 웹사이트에서 찾아 읽고는 즐거워했었으며 그 공

격적이면서도 위트넘치고 재기발랄한 필발에 감탄한 적도 많았다. 심지어 우연한 자리에서 그와 매우 닮은 그의 동생분을 만나고는 "저 누구누구씨 글 너무 좋아해요~"라고 호들갑떨었던 적까지 있었다.

나는 그들이 여성과 여성주의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몰랐다. 아니 알 수 없었다. 사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알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내가 즐겨 읽었던 글의 필자들- 이른바 이 사회에서 진보적인 지식인이라 불리는 그치들-은 그 '화제'가 대두되었을 때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딱 그 수준의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것도 그들이 쓰는 '글'을 통해서- 알 방법 없이, 그저 궁금해하고 아쉬워할 뿐이었다. 그들이 자신해서 그 '화제'에 대한 생각을 표출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숨기고 '중립적인 척' 하는 것이 말도 못하게 힘든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그들 역시 무언하도 대답했었나보다.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명분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속이 뒹겼는가. 그렇다. 드디어 작년 봄!! 그 새끼가 우리나라의 최고영화전문잡지라는 한 격주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주류 페미니즘을 몹시 마땅치 않아 한다'는 견해를 너무나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들의 벨타 날리기는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새끼 '주류의 진보주의자' 남성들은 하나같이 주류 페미니즘(정확하게, 90년대 이후 한국의 주류 페미니즘)을 마땅치 않아 한다'더라. 아무래도 그 새끼가 용기 있게 선포하기로 했었나보다.

해일 VS 조개

'한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형태이자 정치적 실험으로, 미래형 정당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¹⁾는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이 '대전'으로 인해 온 나라가 한창 시끄러웠던 2002년 11월 23일에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는 '중산층 여성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가? '페미니즘을 명분으로 자신의 무절제한 성적 쾌락을 정당화하는 일부 이기적인 중산층 여성들'은 비판하면서, 가부장제 혹은 남성우월주의를 명분으로 자신의 무분별한 성적 쾌락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남성들은 왜 비판하지 않는가?

물론 "어떻게 진보정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라고 화를 내고 싶은 심정이 없지는 않다. 특히나 그 정당이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직과 임명직 공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양성 중 어느 성도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²⁾는 개혁당이라는 점에서 그 분노는 더더욱 클 수 있다. 그러나 자기네들을 진보적인 단체로 정체화하는 여러 공동체 내에서 수많은 성폭력이 발생하며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벌어



1) 「그년들」의 여당장 '조 개'가 이 데 있는 단어 쪽이라는 걸 굳이 가로세우어 아니 싶다는 최보은 씨의 생각에 공감하는 의미에서 '조 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002년 5월 27일, 「씨네 21」에 실린 「특별기고」 「조 개」의 인터뷰에 대한 인용. 참고.

2) 2002년 4월 23일, 「씨네 21」의 「특별기고」 「조 개」에 실린 「조 개」의 인터뷰에 대한 인용.

3) 2002년 4월 23일, 「씨네 21」의 「특별기고」 「조 개」에 실린 「조 개」의 인터뷰에 대한 인용.

4) <http://www.kppr.org/center/default.asp> (개혁국민정당소개)

5) <http://www.kppr.org/center/reform.asp> (개혁국민정당당헌) 1장 8조 (양성평등을 위한 당원의 지위와 권리)

저버린 사건 앞에서 희망할 수 있었던 것은 부디 피해자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사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 정도였으리라.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개혁당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하였다. 여러 당원들이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사과문을 게재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은 명예 훼손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요구로 가해자에 대한 출당 조치가 이루어진 때는 이미 가해자가 발당된 뒤였다. 결국, 최소한의 권리라도 찾아보려던 피해자들의 몸부림은 '묵사발' 된 것이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개혁당 내부 사람들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당시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유시민 집행위원은 "집행위가 이 문제와 관련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는 것도 모자라 "해일이 있는데 조개 잡고 있다"는 글¹⁾을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였다. 아무리 개혁당이라고 할지라도 그놈의 '조직이 어려운데...' 논리를 피해갈 길은 없었나보다.

게다가 2002년 개혁당 창당 당시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개혁성과 진보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혁당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점, 그리고 당연히 그들 중 '여성들'도 꽤 있었으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뜨거운 동지'에 틀 기대하였던 피해자들과 여성 당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사과를 받고 싶다는 피해자로서의 간절한 요구와 가해자를 덮어주고 용호하기까지 하는 당내 분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커다란 '해일' 앞에서 사소한 '조개(?)'쯤이었던 것이며, 결국

그들의 동지는 남성 당원이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여성회의 의장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중앙당으로 끌어와 이슈화시켜서 소수의 여성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중앙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²⁾. '이로 인해 유시민 씨가 "여성위원회"라고 하면 난더리를 친다'고 말함³⁾으로써 피해자들과 여성 당원들의 등에 또다시 칼을 꽂고 말았다.

사랑하는 젊은 벗? 난 그거 안할란다!

이어서, 올 상반기 많은 이들을 기막히게 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고야 말았다. 3월 4일 유뉴스(www.unews.co.kr)와의 인터뷰에서 손석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사건은 시작되었다.

중산층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중산층 여성들이 떠나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그런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역겨워요, 솔직히 말해서 역겹다는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중산층 여성들의 페미니즘 주장,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아몰든 그렇습니다.

아니, '역겹다'니!! 젊은 벗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데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는 그 손석춘이, '중산층 여성들의 페미니즘 주장'에 대해 '역겨워요'라고 했다고? 게다가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은 1년 전의 '그 페

미니즘'이라는 말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 놀랍도록 솔직한 이 발언 앞에서 많은 이들은 한 대 맞은 듯 멍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손석춘의 사랑스런 젊은 벗 중에는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중산층 여성들'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이후 그의 해명인 해명은 계속되었다.

"제가 비판한 대목은 중산층 여성운동 일반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을 명분으로 자신의 무절제한 성적 쾌락을 정당화하는 일부 이기적인 중산층 여성들을 비판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시나브로 퍼져 가는 그 현상에 비판적입니다"라며, 또 "제가 문제 삼는 건, 우리 사회가 성이 넘쳐나고 있어요, 사랑은 없고... 많은 가정주부들이 애인을 가지고 있고, 마쳐 없음 불안해하고, 사랑을 찾아다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구요, 성해방,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중산층 페미니스트만 가져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가져야 하고..."⁴⁾라며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 좀 알려주었으면 정말 좋겠다! - '일부 중산층 여성들'에 계속 포화를 날려대었다. 무절제한 성적 쾌락이라니! 여성들에게 자신의 색수렁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적이 언제 있었던 말인가? '쾌락'을 얻기 위해 욕망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거나 매우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혼전순결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 해방'과 프리섹스의 동일시는 상대적으로 색스로부터 자유롭고 색스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남성들에게나 쓸 수 있는 논리라는 점을 손석춘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그래, 백번 양보해서, 성만 넘쳐나고 사랑은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는 그의 선의를 억지로라도 고려해보자. 그렇다면, 왜 하필 그는 '중산층 여성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가? '페미니즘을 명분으로 자신의 무절제한 성적



쾌락을 정당화하는 일부 이기적인 중산층 여성들'은 비판하면서, 가부장제 혹은 남성우월주의를 명분으로 자신의 무분별한 성적 쾌락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남성들은 왜 비판하지 않는가? 성별을 매개로 한 권력 관계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착각인가? 사랑이 없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슬쩍 여성들을 중

산층 대 비중산층으로 나누고 '페미니즘' 운운하는 손석춘, 그 잘난 '성 담론'들이 도대체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를 대상화하는 것인지, 왜 그것들이 문제가 되며 그 '성 담론'의 수혜자는 결국 누구인지를 비판해야 하지 않았을까.

여성이 부재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아니 이제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꼬집어내는 거야?'라며 글을 읽는 내내 불쾌했을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쾌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권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이들이 '여성'을 어떻게 사고하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진보라는 말을 뒤집어쓰고 스스로를 양성평등주의자라 칭하며 페미니즘이 이렇게 여성문제가 저렇네, 온갖 '못 들을 소리'를 콕콕 늘어놓는 신유형 마초들이 시시각각 등장하고 있는 시점이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소수자들 중에서 여성은 부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과거 '진보적인 지식인'이라고 하면 괜히 무분별하게 호감을 나타냈던 스스로의 나이트와 곧 내 뒤봉수를 때릴지도 모르는 '진보주의자 남성'들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속내를 감추고 있던 많은 이들이 놀랍도록 솔직해졌을 때, 또 나는 얼마나 큰 배신감과 황당함을 느낄 것인가. 솔직히, 두렵다.

그렇지만 여성이 부재하는 진보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고, 만약 정말로 그들이 진보라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노라고, 그런 진보, 트럭으로 실어다 쫓아내고...

그래, 대한민국 진보야, 어디 다 물러와 봐라!!!



1) 2003. 3. 14. (시인)의 신문(http://www.golimes.net) '정예인(정예)이 개혁당에서 성폭력 논쟁, 2) 2003. 6월 '월간 인물과 사상'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잡고 있다', 3) 2003. 6월 '월간 인물과 사상'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잡고 있다', 4) 2003. 3월 20일 (손석춘의) '만해당에서'의 진보, 5) 2003. 3월 14일, 여성신문 '페미니스트와 암시스트가 만나다'.

네티즌의 힘(?)

노풍, 반전집회, 촛불시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답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이버스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것들이 대체로 '진보'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네티즌'은 성숙한 시민들의 참여 의식 표출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네티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였고, 인터넷에서는 사이버 테러도 불사했다. "미선이 효순이를 살려내라"고 네티즌들은 외쳤고, 메신저마다 추모의 리본을 달았다.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고, 네티즌이 '집합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칭송은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니, 다른 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집합행동은 '진보'인가? 물론 언제나 그렇듯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여러 사람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된다. 게다가 그것이 기존사회

의 질서를 바꾸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언제나 힘이 없는 사람은 모여야 살 수 있는 법이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이 '진보'라고 평가되고, 진보의 가능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언제나 현상은 그 현상 자체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의 문제일테니 말이다.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는 네티즌들이 많은 글들을 올리고, 광장으로 모아지고 하고, 메신저에 추모의 리본을 달다.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노사모'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 낙선/낙천 운동을 하는 네티즌들이 있다.

반면 네티즌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군가산제 위헌 소송이 되자 온갖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마비시킨다. 군대도 안 간 '여대생'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다. 여대생들이 '예비역'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그 게시판은 온갖 언어적 성폭력과 욕설로 도배가 된다. 수업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협박도 난무했다.

스스로를 '페인'이라 부르는 '옐'자들은 어떠한가. 디씨인사이드를 기반으로 형성된 이들은 그곳에서 여자친구

나 애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서로 폄평하기에 바쁘다. 동의를 구하고 올린 사진이 얼마나 유폐되는지 알수 없지만 말이다. 사진 합성이 취미인 이들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은 이들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마음껏 욕하고 비꼬고 인신공격을 불사한다. 그들은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할 수 없는 '집단'이다. '진보'를 자처한 언론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사진 합성' 놀이를 통쾌한 '패러디'로 이야기 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다. 'xx를 방법하자'라는 작전 명령 하에 '전국의 예비역'을 건드리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초토화 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집단이 '네티즌'인 것이다.

위의 네티즌과 또 다른 모습의 네티즌. 다른 집단일까? 진보적이고 건설적이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과 여성비하적이고 성폭력과 사이버 테러를 불사하는 예비역(그리고 예비역 정체성을 가진)은 다른 집단일 것일까? 일정정도 두 공간을 오가는 네티즌이 아닐까? 이제까지 '네티즌의 힘'으로 여겨지는 '노사모의 활동', '촛불시



위, '반전집회'가 일정정도 '진보'를 담보하고 사회의 변화를 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것들이 '물성적(gender blind)'인 내용과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에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그들이 설정한 단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또 다시 주변화되고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전열을 나누는 것조차 우습게 만든다.

마초형자들의 변태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트 - 이대 사이버 테러의 주인공들이 만든 곳이라고 한다 - 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야기는 '촛불시위'에 참가하자는 것과, 여성에 대한 비하와 폭력들이다. 이 두가지의 상반되어 보이는 이야기가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는 것. 이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광장'으로 모인 네티즌, 힘을 모으는 네티즌. 좋다. 하지만 뭐든 모이기만 하면 '진보'적인 것처럼 내세우지는 말아달란 말이다.

'진보'를 자처한 언론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사진 합성' 놀이를 통쾌한 '패러디'로 이야기 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다. 'xx를 방법하자'라는 작전 명령 하에 '전국의 예비역'을 건드리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초토화 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집단이 '네티즌'인 것이다.



범대위 유감 - 곧 6월 13일이 돌아온다

월드컵의 붉은 물결에 지방선거도 묻혀버렸던 지난 여름의 한가운데. 그 6월 13일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 1년 동안도 그랬다.

촛불시위의 풍경

미군 장갑차 사건이 일어난 이후 광화문 앞, 시청 앞에는 수많은 촛불들이 들어섰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꾸러졌던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책 위원회'는 네티즌들이 시작한 촛불시위를 받아 안아 시위를 주도했다. 집회의 무대에선 이제껏 대동한 한미 관계를 주장하며 싸워온 인사들이 청중들에게 호소한다. 우리의 꽃다운 어린 여중생을 살려내라. 살인 미군을 처벌하라. 집회행렬 한 켠에는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진들이 전시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몇 해 전 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기지촌 여성 **故윤금씨**의 처참한 살해 장면과 장갑차에 깔린 **故심효순**, **심미선**의 주검을 적나라하게 담은 사진. 집회의 말미에는, 심지어 한 번도 집회가 허가되지 않았던 미 대사관 앞을 그 수많은 촛불들의 힘으로 장악해 신나게 'Fucking U.S.A'를 불러대고 성조기를 불태운다.

높은 수준의 이타심은 아니더라도, 억울함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감만이라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촛불 시위에 한 번쯤 가보았을 것이다. 무대에서 들려오는 분노에 찬 목소리들과 촛불을 든 선한 아이들의 얼굴에 어찌하면 눈물 한 방울쯤 흘렸을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라면 이제 1

주기를 맞아, 2002년 겨울에 이슈가 되었던 개혁 사안들을 모두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로 돌리고 안도하고 있던 찰라, 소파개정은커녕 살인 미군에 대한 처벌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혹은 아직 기억하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분노를 모아 이번 6월 13일 다시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 서겠노라 다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위의 집회 풍경은 불편한 풍경이다. 여성에게 그렇고 국가와 민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기를 거부하는, 혹은 할 수 없는 그 국가 속의 모든 소수자에게 그렇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채로의 촛불시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민족주의-태극기와 성조기

집회 풍경에서 볼 수 있듯이, 범대위가 주도하는 집회의 바깥에는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 물론 제3세계 국가들의 저항적 민족주의는 1세계 국가들이 주도하는 부당한 세계 체제 속에서 일종의 선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대위의 집회에서의 그 민족주의의 표출은 너무나 무박하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뿐, 1세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계 체제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풍부한 담론화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성조기에 대한 적의와 태극기 수호 의식이다. 무수히 많은 민간인을 죽인 자리에 자유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꽃피곤 했던 미국의 국기를 미 대사관 앞에서 불태우는 것은 일면 속 시원한 일일 수도 있고, 즉자적인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조기를 태우는 분노가 제국을 꿈꾸는 미국의 오만한 보수 지배 세력에 대한 분노일 뿐이라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 순간에는 다만 미국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조기가 불타고 있는 그 순간, 성조기로 묶여있는 미국 내 소수자의 존재 역시 휘발되어 버린다. 미국은 나쁜 것이고 태워 없애야 한다면, 미국 내의 여성, 미국 내의 성적 소수자, 미국 내의 장애인, 미국 내의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상상할 수 없게 된다. 단순한 반미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에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하는 선정성일 뿐이다. 그에 반해 태극기 수호 의식을 살펴보자. 범대위의 집회 무대 뒤편에는 대형 태극기가 종종 걸려있곤 한다. 집회 여기저기서는 간혹 대한민국 만세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성조기가 불탄 자리에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해 시위대의 물결을 따라 전달된다. 그러나 그 국기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지 못해 지하철 리프트를 타는 것을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나라의 국기이고, 호주제 폐지를 가정을 가부장에게 묶어 놓는 나라의 국기이고,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치부하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개인간의 성에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법을 가진 나라의 국기이고, 노조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의 국기이다. 미군 장갑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수호해야 할 대상은 인간의 인권이 저 그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대한민국의 국기는 아니다.

남성의 얼굴을 한 민족주의

-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한 분노의 시선,
윤금이 씨 사진 사용의 문제와 'Fucking U.S.A'

더욱 불편한 것은 그 민족주의가 심지어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여중생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 '여중생'을 살려내라는 구호 속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어린 두 여자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민족의 분노를 호소하려는 심리가 숨어있다. 이런 시각이 더

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故심효순**, **심미선**의 사진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故윤금씨**의 사진이라는 사실이다.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장갑차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주한미군 기지를 수리하다 감전사한 **故전동록** 씨의 사진이 아닌, 미군의 성범죄로 죽음을 맞이한 **故윤금씨**의 사진을 더 폭넓게 사용하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민족의 분노를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그 전략이 운동 주도 세력이 의도한 것이었다, 혹은 그들의 성찰되지 못한 무의식 때문이었다, 여성인 나에게겐 불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Fucking U.S.A', 대부분의 욕설은 남근중심주의에 기반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신기하게도(!!)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볼 수 있고 영어의 'Fuck'이라는 욕설도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단어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성찰해 보면 이것이 폭력적인 언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범대위는 그것이 또 하나의 폭력임을 성찰하지 못한 채 신나게 'Fucking U.S.A'를 틀며 반미를 외치고 있고 심지어 민주노동당은 이 곡을 대선 유세곡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 앞에서 촛불을 들고 주한미군 범죄 해결과 대동한 한미관계를 염원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배제하고선 말이다.

모든 폭력은 성찰 없음에서 시작된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WAW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제기를 범대위에 공식서한으로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범대위에서는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일주일 전쯤 연세대학교 앞에서는 1주기를 맞는 6.13에 촛불을 다시 들 것을 호소하며 여전히 'Fucking U.S.A'를 사용하고 있는 범대위를 목격할 수 있었다. 폭력은 성찰 없음에서 시작된다. 범대위는 주한미군철수와 대동한 한미관계를 외치면서 지배자들의 성찰 없음을 질책하기 전에 자신들 안의 폭력성,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인 가부장성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다. **Day Dream**



여성주의를 하는 남성들 Men Doing Feminism

글 김고연주 (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4학기)

오늘날,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여성운동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의 실체와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과 논쟁이 존재한다. 이것은 '호주제 폐지 법안 국회 제출'이나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처럼 여성운동이 우리의 일상에 점점 깊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이 문화 현상 내지는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여성운동의 기저인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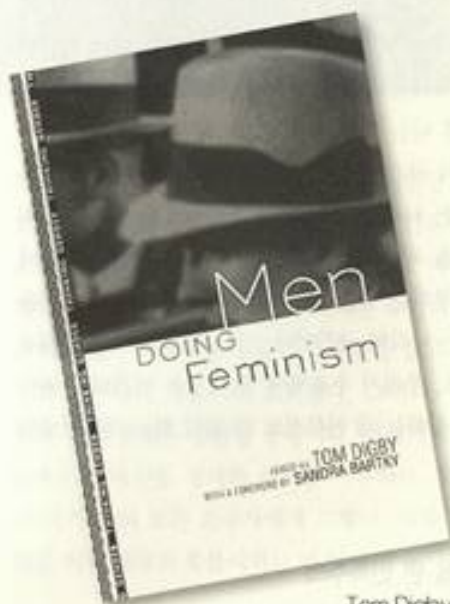
여성주의는 이미 '여성'들이 전유하는 사상이 아니라 성별을 초월한 사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주의를 하는 남성들」(이하 「여성...」)은 시의 적절한 - 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 관심사를 다룬 책이라고 생각된다.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

「여성...」은 역사적으로 논쟁을 거듭해 왔던 여성운동의 주체를 '남성'이라는 성별로 접근한 글들을 엮은 책이다. 「여성...」은 여성주의가 기본적으로는 '여성을 위한' 것이지만 오직 '여성'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여성주의

자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책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누가 누구를 여성주의자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 '여성주의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면했을 때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성...」은 여성이지만 여성주의자가 아닌 여성들, 남성이지만 여성주의자인 남성들, 자신은 여성주의자라고 인식하지 않지만 여성주의자라고 여겨지는 여성과 남성들, 그리고 여성주의자 여성들의 예를 들면서 성(sex)과 성별(gender), 그리고 정체성의 관계 내지는 한계,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Tom Digby, 김고연주 외 옮김, 2003, 포 에너의 문학 (출판 예정)

특히, 이들이 상정하는 '남성'이라는 성은 성전환 이전과 이후의 성(FTM: female to male)과 MTF: male to female)까지 포함한다. 즉, 자신의 성과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던 여성주의자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자신의 혼란을 묘사함으로써 성과 성별 관계의 임의성을 강조한다.

남성이 여성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여성과 남성들은 자신과 동료의 성에 어느 정도의 집착을 보이게 마련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받은 억압과 차별을 남성들은 경험할 수 없으며, 가부장제에서 남성은

생득적으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억압과 차별에 대한 축적된 기억과 경험으로 인해 여성 여성주의자들은 남성을 억압자로 인식하기 쉽고, 가부장제에서 부당한 권력을 누려온 남성들은 여성 여성주의자들을 남성 혐오자로 인식하기 쉽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 여성주의자들의 성대결을 조장하고 여성주의가 반남성주의와 동일한 것처럼 호도해 왔다. 남성들은 여성 여성주의자들이 소수의 남성들의 행위를 기반으로 남성을 모두를 일반화하거나 잠재적인 가해자로 상정한다고 비난했고, 여성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에서 부지불식간에 권력을 향유해온 남성들이 그들에게 체득된 가부장성을 탈피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 여성주의자들의 상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의 등장이 남성과 여성 여성주의자 모두에게 당혹감을 안겨 주었다. 자신이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남성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겁쟁이 또는 계집애라고 놀림을 받거나, 끊임없이 동성애자이거나 성불구라는 의심을 받았다.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상이 '지독한 마초'이거나 '거세된 남성'이라는 극단적 이분법만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남성은 지독한 마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 여성주의자는 진정한 남성이 아닌 거세된 남성이라는 이분법이다. 이것은 다시 남성은 여성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정언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여성...」은 모든 여성주의자가 지양하는 남성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와 행동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어 있으며,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성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성이 여성의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남성 여성주의자들은 남자로서의 경험과 남자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 여성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여성주의자들은 그들의 성찰을 통해 여성주의적 변혁이 올바르게

정당하다는 윤리적 공감을 기반으로 여성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성주의로 인해 변화된 삶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다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삶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여성주의자의 의미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부장제에서 생득적 권력을 누려온 남성들은 여성 여성주의자의 등장으로 그들의 권익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꼈다. 또한, 가부장제에 의해 치밀하게 주변화되어온 여성들의 피해의식은 여성주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결과를 낳곤 했다. 여성 여성주의자들이 어렵게 이룩하고 변화시켜온 결과물들을 남성들이 또 다시 여성들로부터 가로챌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에 대한 남성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은 남성과 여성 여성주의자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가부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은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 여성주의자들과 남성 여성주의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체화한 가부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있고, 여성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적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남성 여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여성 여성주의자들은 남성의 본성과 변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남성의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었고, 남성들도 여성주의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비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여성주의자의 주체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주의자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여성...」을 통해 많은 남성 동자들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는 숭고한 희생의 상징이다. 생명의 고향, 오염되지 않은 자연. '새만금 아리랑'의 '어머니를 욕보이지 말라'는 외침은 이런 상징체계를 너무도 적절하게 이용한 것이다. 특히 '욕보이다'라는 말이 단순히 '치욕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강간을 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윤민석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묘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 숭고한 생명의 고향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부정한 이유(몇 푼의 돈)로 개발하고 파괴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머니를 강간하는 것과 같은, 천하의 '배륵'이 되는 것이다.

나는 윤민석의 노래를 문제삼으면서 새만금 사업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새만금 사업을 어머니를 강간하는 것에 비유하는 그의 언어의 적박함이다. 그가 '욕보이다'라는 말을 아주 순진하게, '치욕스럽게 하다'라는 의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에서 이 말이 '강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면, 그의 '의도'를 보호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가 기대고 있는 상징체계 안에서 '아이들의 미래'인 어머니는 너무도 숭고하지만, 그 숭고함은 '욕보임'을 당할 수 있는 수동적인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비유들은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이제는 식상하기조차 하며,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민족주의적인 언설들 속에서는, 앞의 사례에서 자연에 대응되었던 '어머니'가 국민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몇 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김기덕의 영화 '수취인불명'에서 양동근이 연기했던 혼혈아가, 자신의 어머니인 매매춘 여성을 학대하는 듯 보이는 부분들을 기억해내 보자. 그 영화에서 이 혼혈아는 '오염'된 어머니로 인해 자신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전히 오염된 상태로 존재하는 어머니를 학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어머니의, 미군 아버지가 남겨놓은 문신은 결국 혼혈아 아들에 의해 드러내어지고 마는 것은, 이러한 은유의 뻔한 귀결이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숭고함을 가질 수 없는 '오염'된 어머니의 모습은 사실, '성녀'와 '창녀'의 오랜 이분법 구조 안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오염'으로 인해 이 어머니는 '어머니'가 될 수 없으며, 이 '오염'은 돌이켜질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경계를 넘어버린 '창

어머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 착한 이들은 들을 수 있지 / 갯벌에서 숨쉬는 생명의 노래 /
누가 하찮은 미물이라 무시하는가 / 누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가 / 아! 새만금 갯벌은 생명의 고향 /
아! 새만금 갯벌은 어머니의 땅 / 몇푼의 돈에 눈멀고 귀먹은 사람들이/어머니를 욕보이지 말라"
(윤민석 작사, '새만금 아리랑')

글: 팽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석사과정)

녀'에게 '성녀'의 역할인 어머니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가 얼마나 남성중심적으로 구축된, 허구적인 개념인지를 본다.

"제 드라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정하고 쓰는 것"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나 여러 취미생활 등 즐길 게 많지만 대부분의 보통 어머니들은

힘든 하루를 끝내고 드라마 시청하는 게 큰 낙이라는 걸 안다"

"피곤한 분들이 잠시 일상을 잊으라고 쓰는 내용이라 어떨 땐 보기 싫을 정도로 리얼리티를 살리고, 때로는 일부러 코믹 오버(과장)도 넣는다"

(인어아가씨 작가 임성한, 연합뉴스 2003-06-03에서)

현실에서 어머니의 자리는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묘사들을 요즘 업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 임성한 작가(일일드라마 '인어아가씨')의 인터뷰 내용은 실제로 어머니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들은 힘든 하루를 (아마도 가사노동으로 점철된 하루를) '인어아가씨'를 보며 잊을 수 있는, 그 드라마가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큰 낙'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는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이 인터뷰를 위한 조심스러운 표현에 지나지 않는 듯 하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인 단어로 그가 말하는 어머니는 '아줌마'에 가깝다. 일에 찌든, 즐길 것 하나 없는, 감수성이 부족한 '아줌마', 일일드라마에 울고 웃고 우는 '아줌마', 실제로 어머니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딱 그만큼인 듯하다. 민족의 '어머니', 생명의 고향으로서의 '어머니'라고 말해질 때의 숭고함과와는 전혀 다른 '아줌마'로서의 어머니들만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임성한이 말한 '어머니'가 윤민석의 '어머니'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결국 '어머니'는 희생하는 존재라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허상이다. 어머니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대고 싶어하는 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어머니'의 관념은 성녀/창녀의 이분법 속에서 강화되기도 하고, 피곤한 '아줌마'의 이미지와 결합되며 '희생'이라는 관념을 극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사실, 그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다. '어머니'에 대한 거창한 관념들 속에서,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나와 싸우기도 하고 나를 꾸짖기도 하면,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는 없다. Day Dream



뿌리 깊은 '화냥년'의 역사

글 무름

한국에서 성매매 여성의 위치는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천시받으면서도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인정하려 들지는 않는다. 생전에는 '갈보', '결레'로 취급받던 성매매 여성이 미군의 손에 살해되었다는 이유로 '순결한 누이'가 되기도 한다. 이용당했으면서도 동시에 멸시를 받은 성매매 여성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기록도 자세한 것이 없다. 다만 몇 개의 문헌들을 통해 들여다본 성매매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성매매의 기원

전쟁이 벌어지면 피정복민의 여성은 거의 예외 없이 끌려가 성적 노예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 3~4세기경 고구려에서는 부족국가간의 정벌과정에서 발생한 젊은 여자 포로를 선발해 '유녀'라 불렀다는 기록이 나온다. 신라 시대에도 이 같은 예가 있고, 여자 화랑이었다고 전해지는 '원화'가 사실은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설도 전해진다. 노비나 천한 출신의 여성이 몸을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김유신 장군의 연인으로 알려진 천관녀가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기생 제도의 기원을 고려 시대부터라고 보았다. 백제 유기장(柳器匠)의 후예인 양수척(楊水尺)이 수초(水草)를 따라 유랑하며, 고려의 이의민(李義民)이 남자는 노(奴)를 삼고, 여자는 기적(妓籍)을 만들어 기(妓)를 만드니, 이것이 기생의 시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고려 문종 때에는 팔관연등회(八關燃燈會)에 가무를 담당하는 여악(女樂)이 있었다고 하며 이들은 후에 관청에 속한 관기(官妓)가 된다.

기생과 여사당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점은 성을 억압하던 조선시대에 기생 제도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기생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기생이 없다면 일반 부녀자들의 정조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생 제도는 식민지 시대까지도 유지된다. 자신들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천한 신분의 여성을 합법적으로 성적 대상화했던 것이다.

기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의 신분이었다. 가령 양반과 혼인하더라도 그 자식은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했던 조선 시대의 관습)에 따라 아들은 노비, 딸은 기생이 되었다. 기적에서 빠져 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딸을 대신 기적이 올리거나 돈을 주고 속량되는 방법이 있었다. 따라서 기생의 업은 모계로 세습되는 경향을 보인다. 양인 신분의 여성도 때로는 흥년이 들어 기방에 팔려가거나 역적의 딸이 강제로 기적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생이 되기도 했다.

TV 사극에서 묘사된 기생을 보면 천민 신분임에도 상당한 교양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생을 교육시키는 기생청에서는 가무는 물론 양반들이나 공부하던 시(侍)·서화(書畵)등을 가르쳤다. 그것은 기생이 오늘날의 고급 콜걸과 비슷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양반들은 '성을 사기 위해' 기생을 찾았다고 인정하기 싫었던지 기생들은 몸을 파는 일을 하기보다는 주로 양반들의 '낭만적인' 연애상대가 되거나 소실로 들어간다. 그러나 오늘날의 '호스티스'와 대비되는 기생에 대한 미화는 그들의 본업이 원래는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종종 왜곡하곤 한다.

하류층이라고 해서 성을 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퇴기 출신의 주막집 주모나 작부들이 나그네나 고을 사람



들을 상대로 몸을 팔았고, 떠돌아다니며 기예(技藝)를 보여주는 사당패도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부업(?)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식민지 시대, 그 이후

이른바 공창 제도가 뿌리내린 것은 일제 시대부터이다. 일본은 한일합방을 전후해 자국의 공창 제도를 그대로 조선에 이식했다. 헌진건의 소설 '고향'에서 약혼녀가 일본 유학에 팔려갔다고 하소연하는 주인공의 말로 미루어 보아 일본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차대전 당시 수많은 조선 여성들을 중군 위안부로 끌고 간 것도 일제에 의해 저질러졌던 강제적 성매매의 예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공창제는 폐지된다. 그러나 이때부터 또 다른 형태의 성매매가 시작되었다.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기치촌'에서 소위 '양공주'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나마 일제 치하의 성매매에는 분노하던 '남성'들에 의해 양공주들은 '외화회독의 수단'이며 조선을 해방시켜준 우방에 바치는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된다. 61년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성매매는 여전히 묵인되었고 70년대에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기점으로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기생관광이 성행하였다. 법 제정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매매는 '접대'나 '성폭력 방지'라는 핑계로 사실상 합법화되어 있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더러운 년'이란 굴레에 갇힌 채 살아갔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폭력 없는 불쾌함 남성에게 성폭력이란...

어느 날 친구가 전날 매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며 전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친구와 함께 사우나에 가서 쉬다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좀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어떤 남자가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고 했다. 친구는 매우 불쾌한 듯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깨어난 것을 눈치 채고 도망가던 그 사람을 잡아서 죽도록 찔렀다고 얘기하였다. 재수 없었다는 말을 연신 하면서, 그래도 잡아서 반죽여놔서 다행이었다고... 그리고 충고처럼 나에게 새벽에 그런 곳에 갈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 나 또한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친구와 별로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내 몸을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만지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나에게 위협적인 폭력으로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당한' 경험을 얘기해준 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친구는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불쾌함을 당한 것이었기에, 여기서 나름의 해결책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손을 봐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순간 느꼈던 불쾌함을 잊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남성은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남성에게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정체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다. 남성들은 보통 '성폭력'이라는 말만 나오면, 자신이 구체적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닐지라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남성을 성폭력 가해자로 모느라'고 발끈하곤 한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로 가해자야!'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가해자 위치로 규정하고, 자신은 가해자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성이니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남성들은 가해자를 잡아서 보복하지 못함을 억울해하지, 자신이 받은 성폭력적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폭력 피해를 쉽게 지워버리곤 하는 남성들이 피해자로서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그 행위의 불쾌함, 당했다는 기분나쁨, 때리지 못한 억울함' 등이 아닐까.”

사실 남성 스스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서 조심한다면, 이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본심은 따로 있다. 스스로를 가해자로 위치지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손으로 너무나 쉽게 이 지위를 부정해 버린다. 어쩌면 이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은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왜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 모느라?'는 제 발 저리는 반응은 이러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구체적인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워버리는 것이다.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은 보통 다른 남성으로부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분명한 성폭력인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같은 남성한테 당했다는 점 때문인지, 이것을 전혀 성폭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국 사회는 남성들 사이에서 신체에 대한 성적 폭력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친밀함의 표현이나 장난, 불쾌한 행위로만 여겨진다. 남성들은 성폭력을 '가해자=남성, 피해자=여성'의 구도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아무리 성적인 피해를 받았을지라도 스스로를 결코 '성폭력 피해자'로 정체화시키지 못한다. 불쾌함, 기분나쁨, 재수없음 등이 남성들이 자신을 향한 '성폭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된다.

폭력에 대해 무감한 남성들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성폭력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상황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나?"고 여성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남성들은 가해자를 잡아서 보복하지 못함을 억울해하지, 자신이 받은 성폭력적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폭력 피해를 쉽게 지워버리곤 하는 남성들이 피해자로서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그 행위의 불쾌함, 당했다는 기분나쁨, 때리지 못한 억울함' 등이 아닐까..

남성들이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공간은 군대이다. 군대에서의 계급에 따른 위계 구조는 개인 남성이 가진 힘을 무력화하고,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 고참이 강제로 껴안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껏볼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계급이 낮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위협이나 폭력에는 '남성답게' 저항해야 하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남성이 아닌 '군인 남성'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신의 신체에 가해진 폭력의 경험을 지우고, 계급이 낮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불쾌한 일로 치부해버린다. 피해가 있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군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불쾌한 과정으로 여기게 된다. 더 이상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계급이 높아졌을 때 자신이 당한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재현한다. 스스로를 강한 이성애자로 정체화하면서도 계급에 기반하여 다른 남성들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의 몸에 가해진 폭력은 잊어버리고 불쾌함만을 기억하면서, 당한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 '불쾌함'을 지워나간다.

남성이 성폭력에 있어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의 위치를 거부하는 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만지고 도망치던 사람을 잡아서 때렸던 친구의 이야기나 군대에서 성추행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모습들에서 그 누구도 성폭력의 가해자도 성폭력의 피해자도 아니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여겨지지 않는 특이한 상황이 남성들 사이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이것이 단지 동성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있어서도 적용되게 된다.



해마다 여름이면

프리셀 연정공 마법의 성 게시판

요새 학관 식당에서 밥먹을 맛이 나오. 여기 저기 보이는 아한 옷차림의 여학생들. 치마속도 쉽게 볼수 있고 (식당서는 왜 다들 치마입고 다리 벌리고 있는지. ㅋㅋ) 뒷모습이 보이는 여학생은 골반뺑자로 인해서 팬티가 보이고 밥먹다가 꼴려서 죽겠어.

(프리텔 연정공 마법의 성 게시판)

오늘 중도에 멋진 아가씨를 보았는가??? 정말 대담하게 1층 열람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탈려고 기다리는 줄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열람실 좌석에서 아슬아슬한 사슬루 스탈의 웃과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서 앉아 있는데 등 부분에는 검은 색 브라 끈이 다 보였소.

그냥 보고 있자니 사람을 보기가 인망해서 잠시 보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계속 눈이 돌아가는 나를 억제할 수 없었소. 정말정말 색사해서 정말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이성이 아니었다면 정말 사고하면 치고 심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소. 참 이른 아가씨를 낚시 덕위지면서 옷이 얇아지고 자신의 매력을 맘껏 발휘하는 것은 좋은데 이 나이 먹고도 아직 스푼카인 나같은 놈들은 그런 것 보면 은유의 피가 꺼꾸로 솟구치니 어쩌란 말이오.

보기만 좋은 그림의 떡이니 그냥 감상만 할 수 밖에... (프리첼 연정공 마법의 성 게시판)

흔히들 연성공이라고 부르는 연세대 정보공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일부이다. 글에 달린 리플은 더 가관이다.

그 여자 봤는데 다분히 의도적이더군요. 출입구
들어오면 안보면 안 되는 자리에. 동엔 아무것도
안입고 정말 검정색 브라만 찬 것 같더군요. 거기

다 초미니스커트. 아주 작정하고 왔는데요. 지나간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었죠./
나도 가끔 강한 충동이 들어.

등등 20~30여 개의 끔찍한 리플들이 달려 있었다.

그 여자도 다분히 의도를 했다니 무엇을 의도

했다 말인가? 자신의 몸이 토막토막 나서 남성들의 눈
요깃감이 되는 걸 유쾌하게 생각하는 여성은 아무도 없
을진대 자기들 멋대로 의도 운운하는 꼴은 정말 바짝기
힘들다. 더운 여름에 짧은 옷 입고 사람들이 잘 지나다
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게 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인가.

순간, 해마다 여름이면 꼭 제기되는 '피해자유발론'이 떠올라 아찔해졌다.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데 무슨 일이 안 날수 있나, 너도 벨미를 제공 한거다"라는 식의 피해자 유발론. 이렇게 따지면 여름에 공공차도르를 쓰고 다니지 않는 이상 어떤 여성이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

90년대 초반 여성들의 '배꼽띠' 패션을 가지고 사회 문제인양 떠돌아댄 적이 있었다. 여성들이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이 곧 성폭력 사건 발생률을 높인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여성들의 배를 가리기에 바빴다. 그 당시에도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더운 여름, 여성들에게만 긴 팔 셔츠와 긴 바지를 강요했다. 피해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다. 연정공 게시판에서도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남성들의 시선을 비판하는 글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한 프랑스 강사가, 한국 여성들은 왜 그렇게 치마를
입고 다리를 오므리
고 불편하게 앉느냐
고 의아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프랑스에서는 누
가 짧은 옷을 입든 다
리를 벌리고 있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 말은 침흘리며 쳐다
보는 남성들에게 그대로
들려줘야 할 소리다. 한
국 남성들은 왜 그렇게

치마를 입고 와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데 눈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 쳐다보는 것도 성목력이다. 지금 당신
은 사선의 성목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야.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셔츠를 입
은 것은 다 보라는 소리 아니냐?

➡ 너 보여주려고 옷 입는 줄 알아? 누가 너한테 내 몸을 막 쳐보라고 했어? 그러니 성폭력을 당할 만 했다?

→ 세상에 성폭력을 당할 만한 이유란 결코 있을 수 없애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의 다리 속과 가슴 속을 쳐다보려
하느냐, 누가 짧은 옷을 입든 다리를 벌리고 있던 당신
이 무슨 상관이길래 남의 몸을 쳐다보며 성폭력을 저지
르냐고

다른 범죄 사건으로 생각해보면 쉽다. 창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도둑이 든 것은 당연하다. 밤늦게 취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강도를 맞을 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이 정도 상식수준에서만 생각해도 피해자유발론이란 말이 안 되는 소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피해자 유발론 운운하는 남성들이여, 더운 여름에 괜한 곳에 놀리지 말고 식당에 왔으면 밥이나 먹고 중도에 왔으면 책이나 보다 가라. 나는 당신에게 내 몸을 흠어볼 권리를 준 적이 없다.

글 이갑 (즐거운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영화 기획에 관심이 많으며, 여성주의
지치언론 '두입술'과 사이버 여성주의 저널 '알
다'(www.idaro.com)에서 활동 중이다.

